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8. 10. 18.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정재원 • ☎ (044) 201-3934, 4146	
보 도 일 시		2018년 10월 1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18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

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-ITS 서비스 개발 착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10월 19일(금)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(C-ITS* 이하 C-ITS)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**한다.

*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,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 사고 예방,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

** C-ITS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

-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- 특히,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정보도 제공받아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 - 운전자도 무단횡단 등 보행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, 고속도로·국도 등에서도 수시로 도로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한다.
 - 또한, 기존에 별도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던 C-ITS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·C-ITS단말기 간 휴대폰케이스, 거치대 등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.
 - 관련 서비스와 장비는 내년 6월경에 개발·성능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며, 이르면 7월부터 대전-세종 도로구간(87.8km)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.

< 주요 대상 서비스(안) >

범주	서비스명	개념도	개요
V2I	① 신호위반 위험 경고 서비스		운전자에게 교차로의 신호 현시정보를 제공하여 신호위반 위험 경고
V2V	② 차량 추돌방지 지원 서비스		전방 차량의 속도 및 사고, 급정거, 급감속 등을 후미차량에 제공
V2P	③ 보행자 충돌 방지 경고 서비스		건물 등에 의해 시야가 가린 보행자 및 자전거의 횡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
	④ 도로 작업자 알림 서비스		작업자가 도로에서의 공사, 청소 등 작업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

* V2I : Vehicle to Infra, V2V : Vehicle to Vehicle, V2P : Vehicle to Pedestrian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그간의 C-ITS는 차량-차량, 차량-도로인프라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여 교통안전,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차량운행 중심의 시스템이었으나, 이번 계기를 통해 서비스 범위와 지원 대상이 휴대폰을 소지한 보행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